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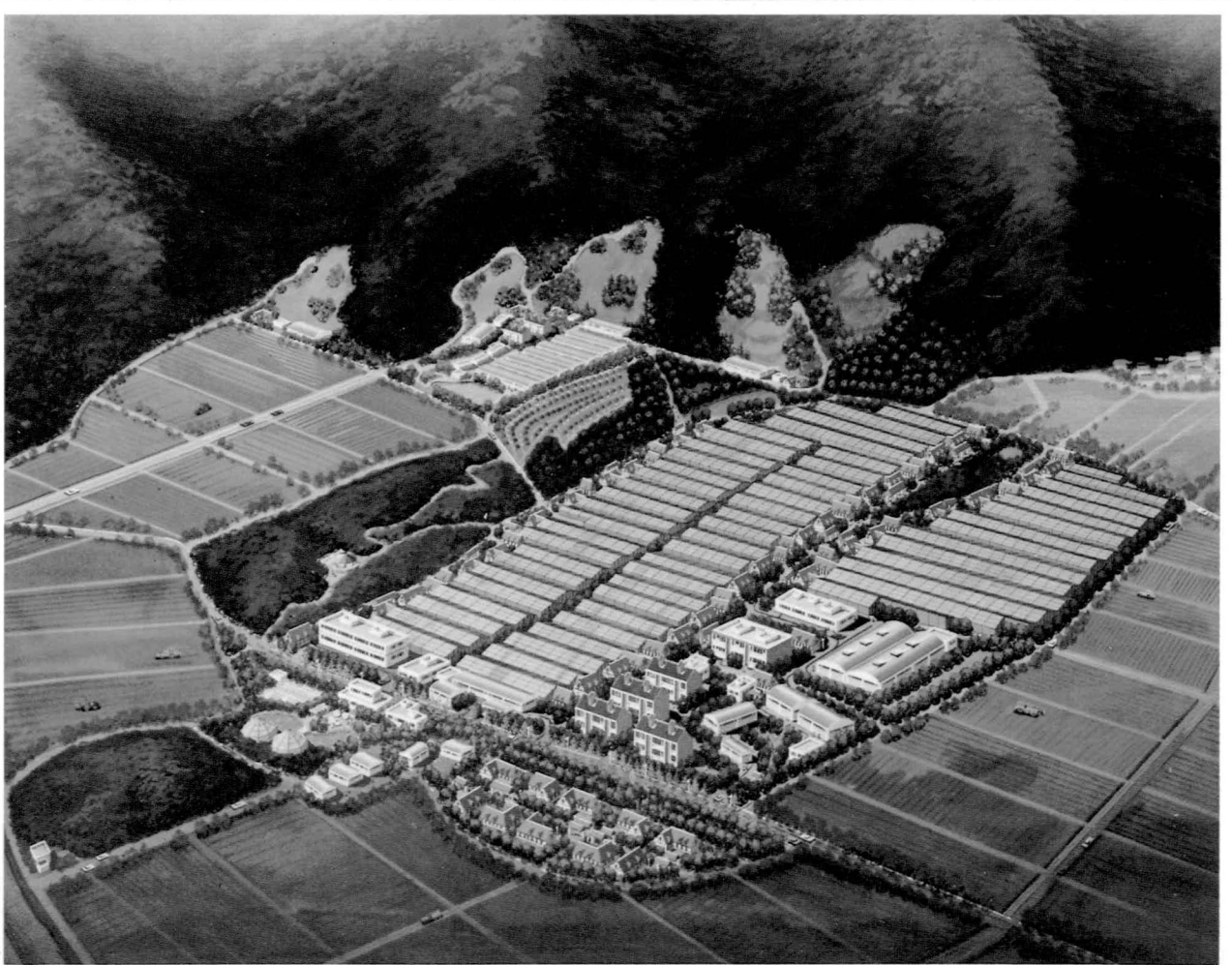
21세기 농어촌 비전 제시를 위한 구상 ②

마을 종합정비계획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 농업·농촌 경제는 안팎으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지난 30여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 인력의 노령화·부녀화 현상과 일손 부족, 영세한 경작면적, 땅값 급등,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 소비의 고급화 등으로 우리 농업은 불가피하게 자본·기술 집약적인 형태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오랜 역사를 통해 전통적으로 답습되어 온 농촌 구조 역시 고도 산업사회에 알맞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현대적으로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싫든 좋든 우리 농업은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동시에 농촌은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생활환경, 생산기반, 하부구조 개선 등 산적되어 있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과제가 분산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농촌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연구원에서는 개발과제를 두루 망라한 종합개발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21세기 선진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코자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소개한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종합정비계획 구상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심있는 분들께 많은 참고되기를 바란다.

1992.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許信行

빈 면

계 획 목 적

21세기 한국농촌의 미래상(未來像)을 구현하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인간 정주생활의 기초단위인 농촌 마을이 가져야 할 21세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내기 위해 전통적인 농경지 분산과 취락구조,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취약한 농어촌의 구조를 재편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본 계획의 기본 목적이다.

마 을 현 황

250여년 전에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구릉사면(丘陵斜面)에 자리잡은 수도작 중심의 평야 집촌마을

홍양리는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에 속하며 부여-예산간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남쪽에 펼쳐진 비교적 넓은 들을 배경으로 예로부터 쌀농사 중심의 농업을

영위해 온 전통적인 농촌마을이다. 총경지 면적은 53.1ha이며, 이 중 논이 47.2ha이고 밭은 5.9ha이다. 호당 소유 경지면적이 0.8ha, 호당 경작규모가 0.9ha에 불과하여 영세한 중소농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농가당 논이 3.6필지, 밭이 1.5필지로서 평균 4.1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근대적 영농과 기계화에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계속되고 핵(核)가족화로 급변

홍양리에는 65가구에 23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1991년). 최근 5년간 평균 6.1%의 인구 감소율을 나타낼 만큼 주민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노동력이 24.4%에 불과하고, 부녀화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현상(74%)도 뚜렷해지고 있다.

■ 낡고 불량한 주택이 많고 자동차와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열악한 취락구조

30년 이상된 낡은 주택이 총 65가구 중 51호를 차지하여 주택의 노후화율(老朽化率)이 62.9%에 이르며, 농기계와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주택이 15호나 되어 취락 및 주택구조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여 건 전 망

2001년에 인구 44%, 가구수 9%
그리고 노동력 27% 감소 예상

여성인구와 6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직계가족이 줄어들며, 소멸되거나 전출되는 가구가 꾸준히 생겨날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와 구조의 변화로 노동집약적이며 토지이용 중심의 전통적 농업경영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구 분	주 민 수			가 구 형 태			노 동 력 구 조		
	총수	60세 이상 비율	여성 비율	직계 가족	핵 가족	소멸·전출 가구	노동 인력	30대이하 노동력 (비율)	여성노동력 (비율)
1991년	230명	16.5%	54.3%	17호	48호	-	119명	24.4%	47.9%
2001년	129명	34%	59%	9호	50호	6호	87명	16.1%	52.9%

기계화에 의한 수도작의 경영규모 확대와 선진농업
기술에 의한 전업농 육성 등 농가 유형별 대책 필요

앞으로 영농형태는 농업구조 개선대책의 꾸준한 추진에 따라 농가유형별 분화 및 전문화로 변해 나갈 것이다. 수도작 농가는 영농규모 확대와 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시설원예와 축산농가는 기술농업을 적극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은퇴·탈농가의 경우에는 전업(轉業) 및 복지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농가유형 ① 전업농 육성이 가능한 30~40대 2인 노동력 보유 농가: 30호

- ② 50~60대의 노동력 쇠퇴로 후계자 선정이 필요한 농가: 21호
- ③ 60~70대의 여성 단독가구: 11호
- ④ 투병중이거나 전출가능성이 높은 농가: 5호

■ 영농권 및 생활권의 확대를 감안한 영농형태별 신주거지(新住居地) 형성에 따른 마을공간 재편

수도작의 영농권은 위탁영농과 기계화로 인해 인접 마을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그 밖의 농경지에는 시설원예, 축산, 과수 등의 분산된 전문 생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단지 내에는 영농유형에 알맞는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되고, 기존 주거지에는 분리·이전 등을 통한 마을공간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마을 주민의 일상생활권이 공간적으로 확대되면서 자동차 이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마을공간의 재편 및 재정비에 대한 수요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전문 시설원예단지와 중소가축단지로 육성될 수 있는 마을 잠재력 보유

마을개발과 농업현대화에 대한 주민의욕과 참여의식이 높아 기술농업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38농가로 구성된 딸기 작목반이 10년 가까이 활동해 오면서 시설원예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또한 마을 뒷편 기슭에 자리잡은 가축사육장의 규모를 확대하면 중소가축단지와 초지방목으로의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마을과 연속된 완만한 구릉지의 분포는 축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잠재력을 높여 주고 있다.

마을종합정비 구상

■ 미래 지향적인 마을의 사회·경제·물적 구조의 재편 유도

수도작의 규모확대와 영농위탁기관의 출현, 컴퓨터 자동 제어 시스템에 의한 채소 재배온실 운영,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설치, 축산단지 조성, 마을단위 농업기술 정보망의 도입, 마을내 가공공장의 유치 등에 필요한 마을 공간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비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수도작을 경영하는 농가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존 농가주택의 재편도 요청된다. 스포츠 및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농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도 크게 높아져 마을 공원과 공동주차장 그리고 새로운 주거 양식의 도입 역시 마을구조 재편의 전제로 대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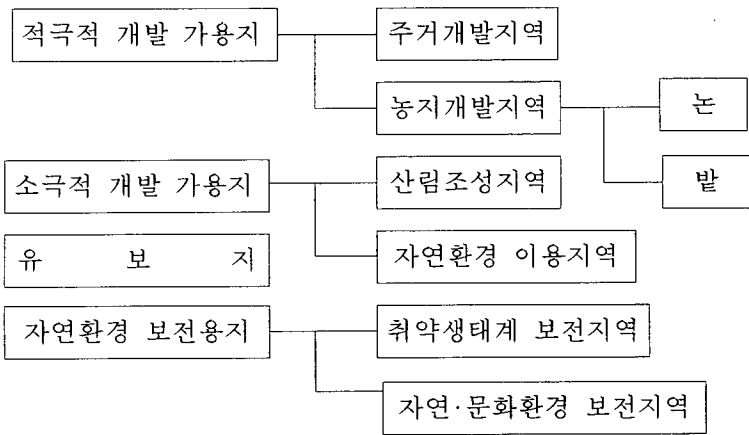
■ 생활 및 생산활동의 효율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주민들의 효율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상위 지역인 군·면 단위 계획과 연계시켜 계획적인 마을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도지구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 질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마을종합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주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새로운 여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유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마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토지의 자연적인 잠재력을 평가한 후, 그 평가등급을 마을의 사회경제적 질서에 알맞게 분류한 토지이용 항목과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토지이용별 적지의 분포를 파악해야 한다.

○ 유지유형에 따른 토지이용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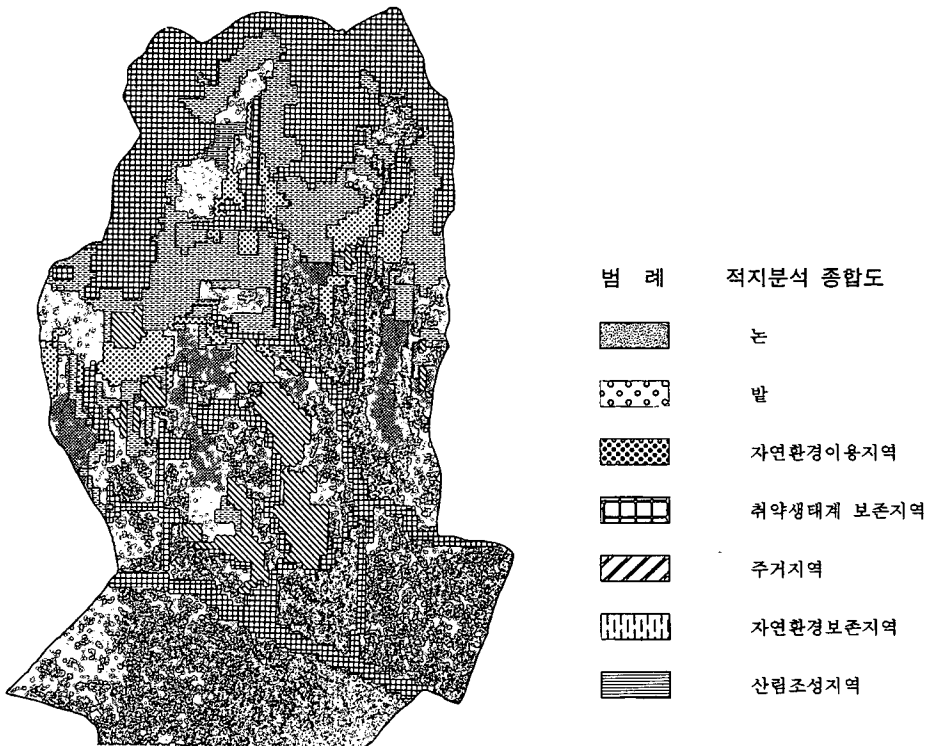


○ 토지잠재력 파악을 위한 토지이용 및 자연환경인자

분 류 인 자		토 지 이 용						
		주거개발 지 역	농지개발지역		산림조성 지 역	자연환경 이용지역	취약 생 태계보전	자연환경 보 전
			논	밭				
자연환경 인 자	표고	○	◎	◎	○	○	◎	○
	경사	◎	◎	◎	◎	◎	◎	◎
	향	◎	◎	◎	○	○		
	토양	○	◎	◎	◎		○	○
	지질	○	○	○	○			○
	기후	○	○	○	○		○	
	식생	○	○	◎	○	○	○	
	수문	○	◎	◎	○	○	○	○

◎ : 분석에 이용한 인자
○ : 분석에 이용하지 않은 인자

○ 토지이용 적지 분포도



환경보전과 주거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전원 녹지공간의 확보

농촌마을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원 속의 푸른 마을로 가꾼다.

- ① 자연환경의 푸르름: 마을의 주거지와 생산지역을 감싸는 녹지 (Green Space, 綠地)
- ② 생활환경의 푸르름: 청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마을공원 (Green Park, 綠園)
- ③ 동선체계의 푸르름: 생활도로망을 이루는 녹도 (Green Way, 綠道)
- ④ 생산지역의 푸르름: 녹색혁명과 청정식품의 산실로 이용되는 유리온실 (Gree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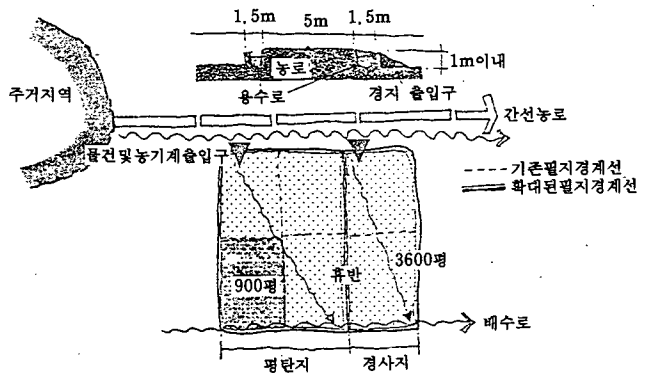
- ⑤ 삶의 질의 푸르름: 주위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주거의 쾌적성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 전원속의 푸르른 생활(Green Life)

용도지구별 정비계획

경지의 필지규모 확대, 범용화(汎用化),
밭 경지정리 추진 및 한계지(限界地)의 산림조성,
시설원예지구와 축산지구의 생산관리와 주거기능의 통합,
농업 및 축산폐수 처리, 농산물의 집·출하장(集·出荷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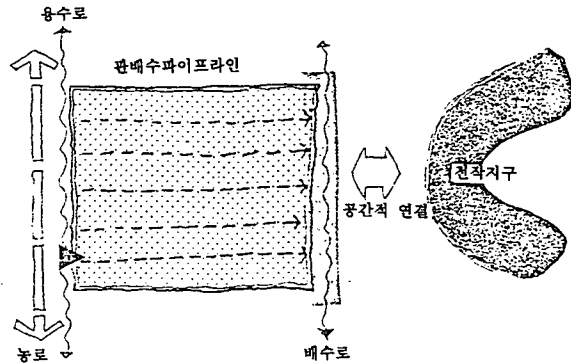
○ 답작지구

생산효율성 증대 및 기계화 영농을 위해 주택과 경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경지규모를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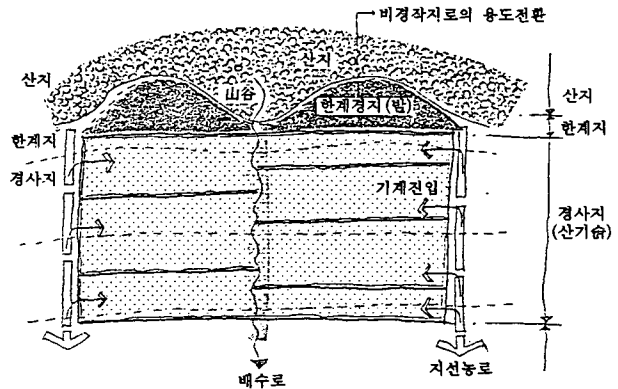
○ 전답겸용지구

경지의 지표 아래 관배수망(管排水網)을 설치하여 농지의 범용화를 도모하고 4계절 전천후(全天候) 경작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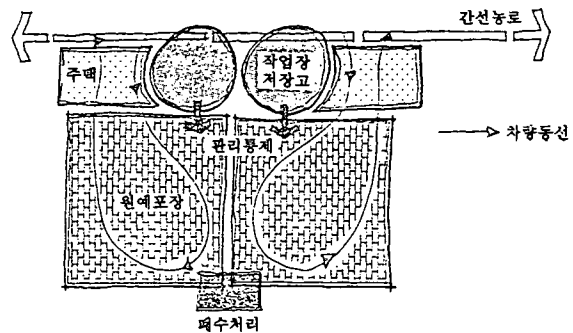
○ 전작지구

밭작물의 기계화를 위하여 지형적 여건에 알맞는 밭 경지정리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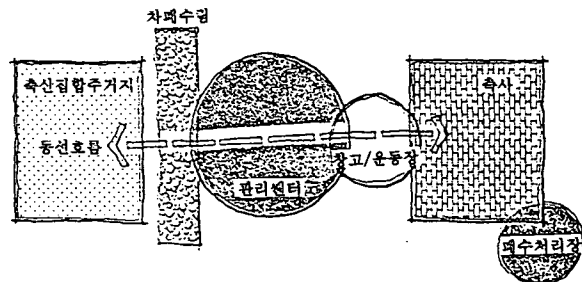
○ 시설원예지구

첨단기술을 통한 관리체계의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 집약적인 시설원예농업에 필수적인 유리온실 (glass house)과 포장정비 및 자동화시설을 설치한다.



○ 축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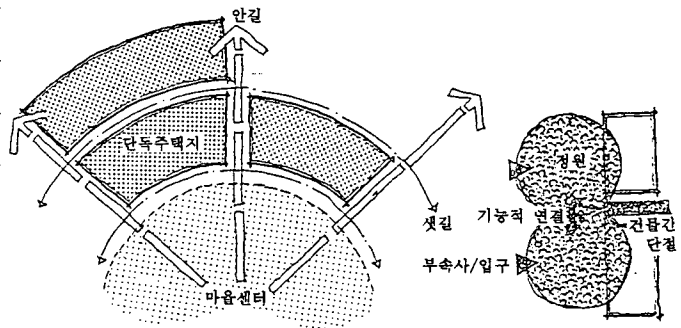
단지 조성을 통해 축산경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마을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주택내의 생산작업 관련기능의 분리, 자동차와 농기계의 효율적인 통행을 위한 마을도로의 확충,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한 단독 및 집합주택군의 합리적 배치, 생산지구별 주택유형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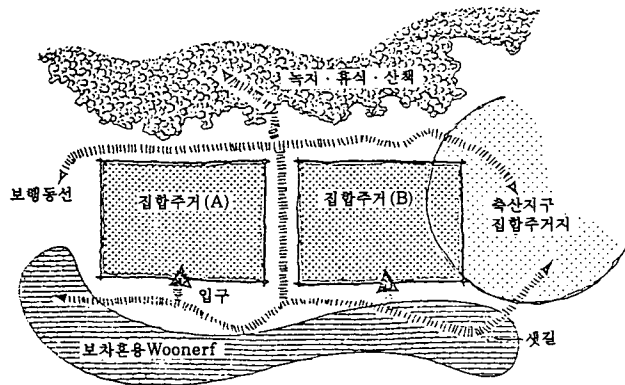
○ 단독형 주거지구

기존 농가 주택에 들어 있는 생산작업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주거지구의 쾌적성을 도모한다. 자동차보급과 영농기계화에 적합한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마을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거공간의 재배치를 추진한다.



○ 집합형 주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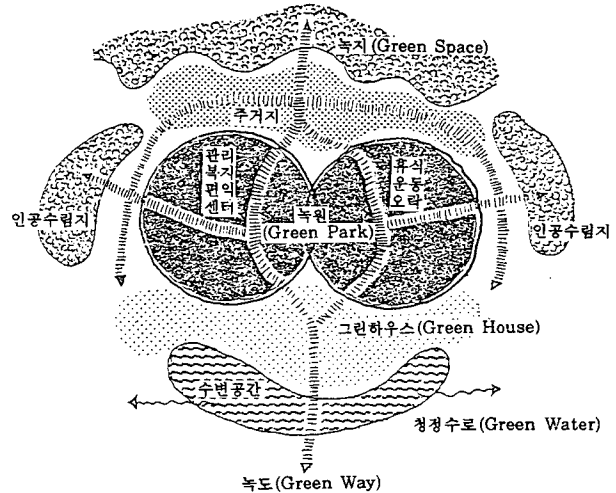
이탈농(離脫農)과 노령화에 대비하여 이들의 생활에 적합한 집합형 연립주택을 도입한다.



공동시설의 마을중심 배치, 공동 창고 및 작업장 확보, 휴식·운동·여가·만남을 위한 마을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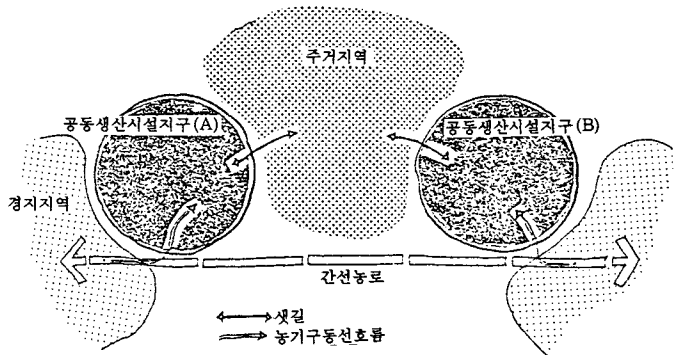
○ 생활공동시설지구

생활공동시설을 통합하여 마을 중심부에 배치하고 편의시설(便益施設) 수준을 높인다.



○ 생산공동시설지구

농기구의 수선과 저장작업을 위한 공동시설을 주거지와 경지 인접부에 배치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마을공간재편과 기계화 영농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선체계(動線體系) 확립

마을 도로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민생활의 편리와 기계화영농에 적합하도록 마을도로 및 농로를 확대포장(擴大鋪裝) 한다. 국도, 마을진입로, 간선농로, 마을 간선로

는 노폭 7~9m로 확보하고, 지구 연계로, 지선농로, 마을 지선로는 노폭 5m, 그리고 산책로, 주택진입로는 노폭 3m로 정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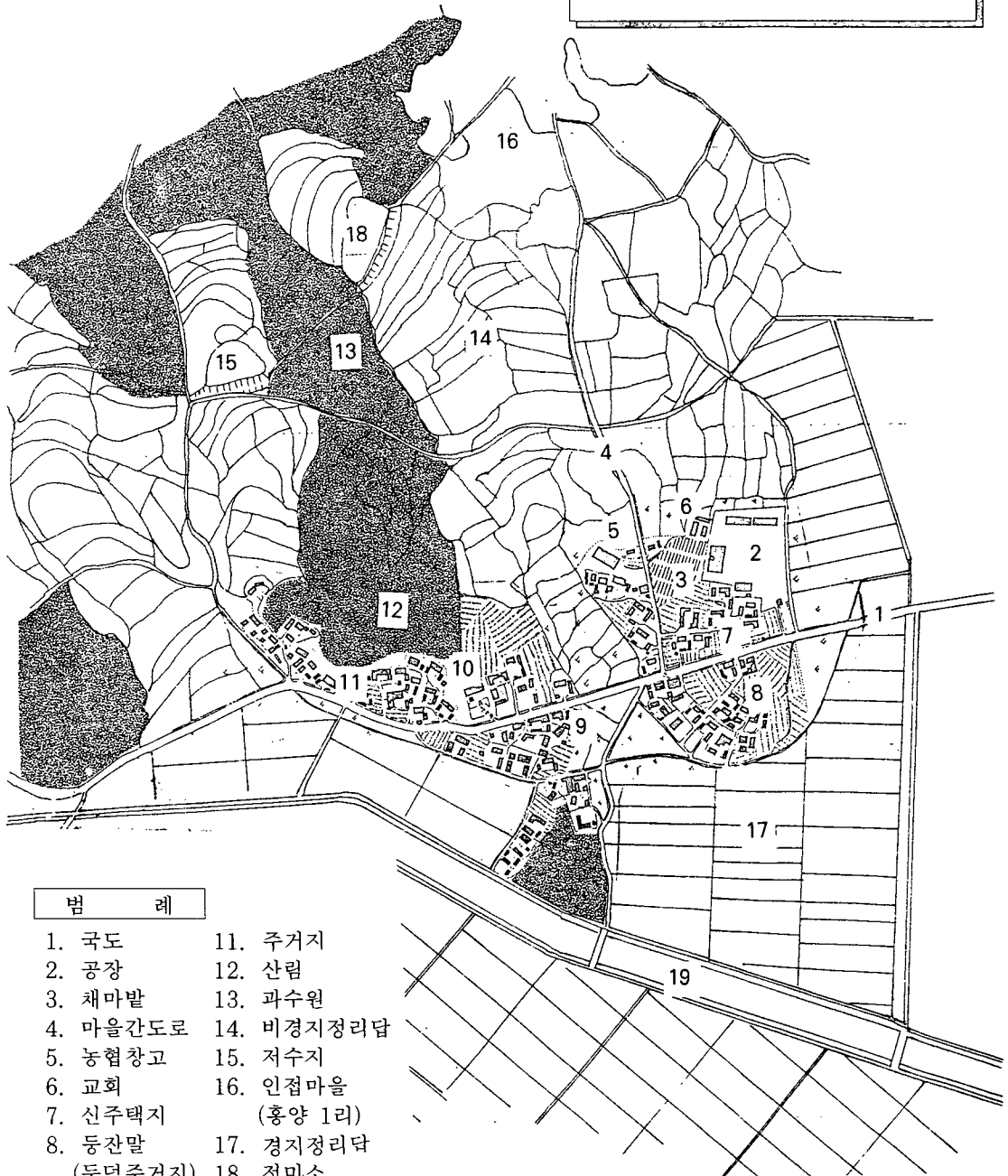
계획의 추진

■ 생산기반 정비, 공동시설 및 하부구조(下部構造) 시설의 확충, 주거지구 정비의 단계적 추진

마을종합정비사업은 총체적인 기본계획수립 아래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각 계획지구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단계: 생산공간의 구획화와 기반시설 정비
- 2단계: 마을 공동이용 공간과 하부구조시설
- 3단계: 개별주택의 이전 통·폐합과 신·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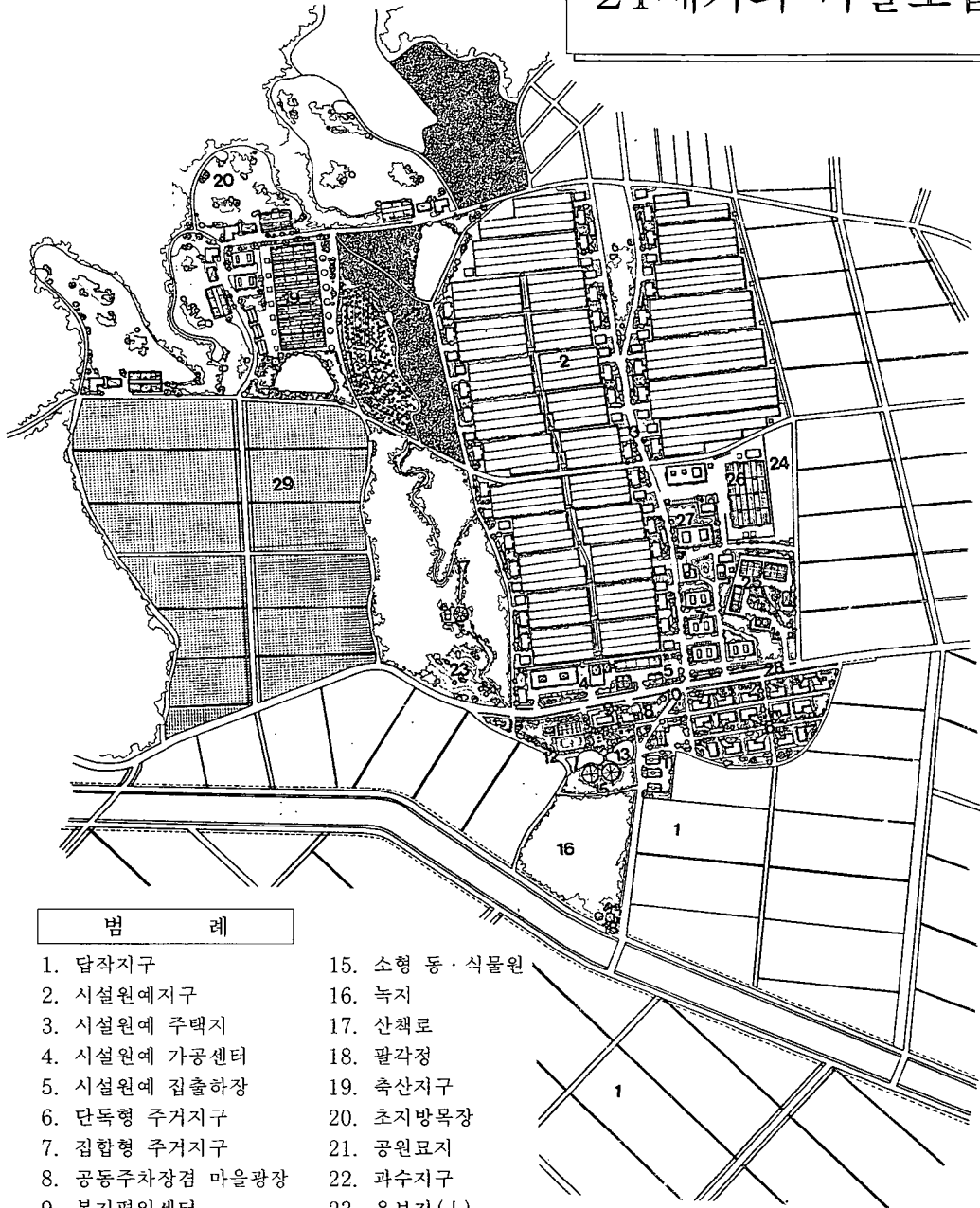
현재의 마을 모습



범례

- | | |
|-------------------|---------------------|
| 1. 국도 | 11. 주거지 |
| 2. 공장 | 12. 산림 |
| 3. 채마밭 | 13. 과수원 |
| 4. 마을간도로 | 14. 비경지정리답 |
| 5. 농협창고 | 15. 저수지 |
| 6. 교회 | 16. 인접마을
(홍양 1리) |
| 7. 신주택지 | 17. 경지정리답 |
| 8. 둥잔말
(둔덕주거지) | 18. 정미소 |
| 9. 상점 | 19. 하천 |
| 10. 마을회관 | |

21세기의 마을모습



범례

- | | |
|-----------------|--------------|
| 1. 답작지구 | 15. 소형 동·식물원 |
| 2. 시설원예지구 | 16. 녹지 |
| 3. 시설원예 주택지 | 17. 산책로 |
| 4. 시설원예 가공센터 | 18. 팔각정 |
| 5. 시설원예 집출하장 | 19. 축산지구 |
| 6. 단독형 주거지구 | 20. 초지방목장 |
| 7. 집합형 주거지구 | 21. 공원묘지 |
| 8. 공동주차장점 마을광장 | 22. 과수지구 |
| 9. 복지편익센터 | 23. 유보지(Ⅰ) |
| 10. 마을관리센터 | 24. 유보지(Ⅱ) |
| 11. 답작 공동시설(참고) | 25. 공장(Ⅰ) |
| 12. 체육시설 | 26. 공장(Ⅱ) |
| 13. 수변공간 | 27. 사원숙소 |
| 14. 어린이 놀이터 | 28. 보조도로 |

빈 면



범례

1. 초지범목장
2. 축산농가주택
3. 축사지구
4. 방목농가주택
5. 전단검용지
6. 공원묘지
7. 담장용지
8. 마을소공원
9. 원예기공공장
10. 마을관리센터
11. 공동청고, 작업장
12. 폐수처리장
13. 전한형주거
14. 단독형주거
15. 저폐수림대
16. 국도
17. 농산물기공공장
18. 유리운설
19. 시설원예농가주택
20. 과수원
21. 인근마을